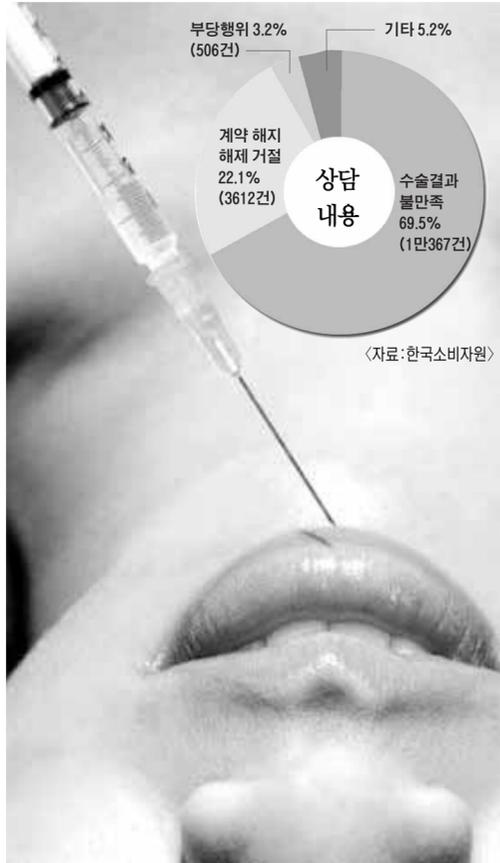


예뻐지려다...



소비를 유혹하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다. 수험생을 겨냥한 패키지 할인부터 성형수술 공동구매 이벤트, 무료성형모델 모집광고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계약금을 걸거나 성형수술을 했다가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6354건이며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성형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명(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21명(22.1%), 10대 105명(10.5%), 40대 이상 56명(5.6%)의 순이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19세가 전체의 49명(46.7%)로 가장 많았고, 가장 어린 연령은 14세(3명)였다.

응답자 중 323명(32.3%)는 성형수술 후 불만을 겪었으며, 170명(17.0%)는 실제로 '비대칭·염증·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이 94명(9.4%)로 가장 많았고, 흉터·화상 57명(5.7%), 염증·감염 36명(3.6%), 색소침착 22명(2.2%), 통증 21명(2.1%) 등의 순이었다.

수술에 대한 중요정보를 누구로부터 설명을 들었는

소비자원 최근 4년간 성형수술 불만족 신고 접수 1만6354건

성형 불만족·부작용 70%...수술 쌍꺼풀·필러·코 성형 順

불만족이 1만1367건(69.5%)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환급 거절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 3612건(22.1%),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526건(3.2%)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이하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동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순 외모개선'이 725명(7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승진' 145명(14.5%), '주변의 권유' 119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한 수술(복수응답)은 쌍꺼풀 등 '눈 성형수술' 678명(67.8%), 필러·보톡스 등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시술' 274명(27.4%), '코 성형수술' 25.6명(2.6%), 안면윤곽·양악 등 '얼굴 성형수술' 110명(11.0%) 등의 순이었다.

지 확인한 결과, 의사 588명(58.8%), 성형 상담 코디네이터 352명(35.2%), 간호사 24명(2.4%) 순이었다.

그러나 수술 부작용 발생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하였다.

응답자 중 304명(30.4%)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를 확인한 결과,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가 568명(56.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터넷포털사이트 410명(41.0%), 지하철역사 내부 383명(38.3%), SNS 245명(24.5%), 문자메시지 194명(19.4%), 온라인커뮤니티 151명(15.1%), 모바일 앱 166명(16.6%) 등의 순이었는데, 상당수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때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드는 인생

서명 안한 카드 부정사용 소유주도 책임

본인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될 경우 소유주가 50% 안팎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어·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대표적인 회원 귀책사유로 들었다.

통상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어·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은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카드 사용자가 면책되려면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 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카드 가맹점 역시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이 있으므로 카드 양도·대어 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합뉴스

허니버터칩 먹으려면 스낵·초콜릿도 사야

마트 등 끼워팔기 기승...공정거래법 위반

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 일부 유통업자들이 폭발적인 인기로 품귀 상태인 감자스낵 '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들을 끼워팔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이다.

아울러 유통업자 뿐 아니라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유통 과정에서 이 같은 끼워팔기를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제조업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3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은 최근 허니버터칩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자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스낵이나 비싼 초콜릿을 함께 묶어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 또는 '인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영리한 상술'로 넘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같은 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가.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다른 제품도 함께 사도록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금감원, 흡소핑 전용 보험 특별검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AIA생명 흡소핑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계획에 없던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흡소핑보험 상품에 대한 과장광고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발단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4일 "흡소핑보험에 대한 과장광고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선제적 차원에서 특별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흡소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AIA생명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선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보험사에 비해 라이나생명, 에이스아메리카인슈어런스 등 외국계 보험사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흡소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적극적이다. 실제 올 1~9월 누적 기준 라이나생명의 월납초회보험료가 5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양생명 20억7000만원, 흥국생명 19억4400만원, AIA생명 19억3300만원 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준다", "모두 보장", "업계 최고" 등 과장설명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오는 불완전 판매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AIA생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p>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p> <p>북구 두암동 561-5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은행건물4층 인해,홍수,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작명,개명,신수 궁합,택일,개인지도함 ☎062)224-7687</p>	<p>그린이용원</p> <p>북구 양산동 오리동영미뒤</p> <p>대표 성옥희 ☎010-3225-2735</p>	<p>아담카페식당</p> <p>동구천변우로 405-10(천변지리산주유소에서콜박스쪽) 오리로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p>
<p>미정</p> <p>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뒤 옛날구미항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p>	<p>무등공인중개사</p> <p>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2차뜨란채아파트건너편 아파트,주택,상가건물,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p>	<p>그레이아웃가게</p> <p>동구 황금동 91-1(강석빌딩지하)콜박스사거리 여성의류 쇼핑몰 잡화전문점 ☎062)225-4150</p>	<p>아워홀테크</p> <p>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주택,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쌍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p>	<p>우리밀빵</p> <p>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E동 51호(분수대옆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골든보석</p> <p>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p>	<p>오리백년(두암직영점)</p> <p>북구 두암동 에덴병원건너편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p>	<p>골든전당포</p> <p>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p>	<p>광주화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p>장충동왕족발보쌈</p> <p>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키치 신속한배달카드결제가능 ☎1588-3300</p>	<p>박당화랑</p> <p>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다나베움므</p> <p>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숙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호선갤러리</p> <p>동구 예술의거리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p>	<p>행복한밥상</p> <p>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우산공원건너편골목해성유치원옆 백반, 아구탕, 아구찜, 단체예약손님환영 대표 정지섭 ☎062)252-3033</p>	<p>토산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p>	<p>거금조경</p> <p>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옴주유소옆편 굴취, 전지, 식재, 벌초, 산일, 이장 예초정원자연식사주 대표 소정택 ☎062)268-7709</p>